그리스도인의 자유

<갈 5:13-18>

13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14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에 대한 갈망을 잘 표현한 경구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에 대한 이해는 사람마다 꼭 같지는 않습니다. 근대 서구 역사에서 자유의 개념은 크게 두 방향으로 발전되었습니다.

하나는 무엇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종교로부터의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등, 나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유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행동에 간섭하지 않는 만큼 자유롭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행동이 금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자유 개념은 무엇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다. 어떤 행동이 금지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자유는, 교육을 위한 자유, 의료혜택을 위한 자유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제 누리는데 있어서 자유로운 것을 말합니다. 이 자유 개념에 따르면, 우리가 선택한 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기회가 늘어날수록 자유롭습니다.

한편, 이 두 자유 개념에는 공통된 전제가 있습니다. 자유는 인간의 태생적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전제를 부정하는 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인류가 처한 그 비참한 상황으로부터 자신들의 철학을 전개한 실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인간 실존과 세계는 지극히 부조리합니다. 인간에게 자유는 태생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설명하는 모든 외적인 근거들을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텅빈 세계 속에서, 인간은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자유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과 자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기독교 역시 자유를 인간에게 태생적으로 주어진 권리로 보지는 않습니다. 즉 자유는 복음 안에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자신들의 자유가 제약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유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에 따르자면, 예수 믿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아이러니를 조장한 것도 교회였고, 그것을 극복할 책임과 소명을 지닌 것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자유의 복음이라면, 그리고 그 자유의 복음을 말과 삶으로 증거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가지고, 실제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자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8:31-32).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압니다. 요한 사도는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요일 5:20)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내가 죄 아래 팔려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비참함 속에서, 나는 이전의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깨닫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결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3:23-24).

바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 내면의 양심은 새로워집니다. 영적인 무감각이나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되어 선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거듭납니다. 이 해방된 양심은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묶여져 있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양심의 판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비추어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서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오직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기준이나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게 하며, 내적 확신 속에서 담대히 진리를 따라 살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참으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판단에 좌지우지 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의 시선을 받으면서도 거리낌 없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해 혹독한 비판을 가하셨습니다. 역시 그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 수치와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온 인류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그 삶에 나타났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셨고, 바로 그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참 자유의 삶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 자유는 모든 예속으로부터 벗어난 영적 진공상태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 속에서 실존적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양심이 그와 조화를 이루는 우리의 행동과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그 참 자유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도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칠 때, 그들은 그것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마치 주인에게 혼날 것을 염려하여 늘 고개를 땅에 쳐박고 있는 종들처럼, 그들은 이 율법 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얼굴에서 수건이 치워졌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두려움과 부자유의 수건은 치워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만족시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이 아닌 아들의 모습으로 서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이처럼 종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유와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1-4).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인 동시에 율법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아 자유케 된 우리가 이제 율법과 배치되거나 무관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율법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수행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에게 옛 사람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이제 진리를 향해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그 진리에 부합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부자유를 느낍니다.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 사이에서 번민하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외쳐야 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두 욕망 사이에 끼어 부자유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 17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지만, 은혜 아래 있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인간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은 이제 형벌의 위협이 아닌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참 자유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며 강압적으로 끌고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늘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2:10,12). 또한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진리로 새롭게 된 우리의 양심이 은혜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닿아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와 조화된 모습으로 살도록, 그래서 자유를 누리도록 도우십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진리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시야가 하늘을 향해 열림으로 말미암은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향하고, 우리의 행동이 그 진리에 부합되어 있는 만큼, 즉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만큼,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위해봉사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에 의한 자유인 동시에 사랑을 위한 자유입니다. 진리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성령 안에서 자유로 인도함 받는 우리는, 이제 사랑 안에서 자유를 온전히 성취합니다.

그런데 이 13절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전체 문맥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 유대인들 몇이 들어와 잘못된 가르침을 유포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적잖은 교인들이 그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 율법에 규정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철저히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 하려 하느냐”며 훈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그 잘못된 가르침 자체보다도, 그 일로 인해 교회 안에 생긴 분란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소위 믿음파와 율법파로 나뉜 것입니다. 믿음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최대한 누리려는 사람들이고, 율법파는 그보다 더 율법에 매여서 연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은 바로 이 상황 속에 주어진 바울의 권면입니다. 즉 믿음파를 향해서는, “너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너희보다 양심이 연약한 형제들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율법파를 향해서는, 그렇게 사랑 안에서 서로의 자유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곧 율법의 핵심을 실천하는 것임을 일깨우면서, 만일 자기의 자유만을 내세우며 물고 먹으면 함께 망하고 말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 이와 비슷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즉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우상의 무의미성을 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죄로 인식되지 않지만,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사람의 경우는 그로 인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만약 강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보고 담력을 얻어 그것을 먹게 된다면, 그것은 형제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고린도전도 13장 5절에 보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 당신의 자유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님처럼 나의 자유보다 이웃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이웃의 자유를 위해 나의 자유를 절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그에게 예비된 온전한 자유를 성취합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를 참 자유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이며, 성령 안에서의 자유이고, 사랑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자유를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가운데 주의 복음을 세상에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자유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의 진리 안에, 늘 주의 성령 안에, 늘 주의 사랑 안에 머물며,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참 자유의 삶을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